

少陽人處方 活用に 대한 臨床的 研究

구덕모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Clinical Study on Soyangin Prescription

Goo Deok-Mo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

1. Objectives

Due to a lack of detail guidelines for prescriptions to ordinary and pathological symptoms in 『DongyiSuseBowon』, doctors depend on their own decision when give a prescription. This study aimed to compare ordinary symptoms and pathological symptoms in regards to six prescriptions being applied to Soyangin to utilize them as guidelines in practices.

2. Methods

Date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003 to August, 2004 at the Sasang Constitutional clinic of Pohang Oriental Medicine Hospital. Patients were first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of symptoms that they had at the time of visiting. Data from 273 Soyangin patients whose chief complains got alleviated after taking the prescribed drug were analyzed to examine if there were differences in prescriptions according to ordinary or pathological symptoms complained.

3. Results and Conclusions

1. Hyungbangpaedog-san(Paedog) was given more to the patients having good digestive function than Hyungbangjihwang-tang(Hyungji) and Hyungbangdojeok-san (Dojeok) ; Dojeok was given for bloating symptom compared to Hyungbangsabaek-san(Sabaek). Yangkyuksanhwa-tang(Yangkyuk) and Dojeok were more like for patients with stomachache compared to Paedog.

Doghwaljihwang-tang(Dogji) was prescribed to patients complaining frequent voiding compared to Sabaek while Sabaek was given for patients who prefer cold water and feel their body warm compared to other prescriptions. Yangkyuk and Dojeok were prescribed more likely to patients with feeling of suffocation than Sabaek.

2. In symptom comparisons between one prescription and the group of the rest of 5 prescriptions, Paedog was found to be prescribed when patients had good digestive function while Dojeok was given in symptoms cases of indigestion, bloating, constipation and dizziness. Sabaek was applied more for patients having tendency of preferring cold water and feeling of heat body as well as good digestive function.

Hyungji was used for patients complaining a symptom of fatigue, in addition Yangkyuk was given to patients who were nervous, sensitive, or impatient when compared to other prescriptions. Dogji was applied to frequent voiding, insomnia, tingling of extremities, backache or leg pain, or in case of tendency of catching a common cold.

Key Words : Soyangin, Prescription, Ordinary symptom, Pathological symptom

I. 序 論

사상의학은 체질에 따라 그 특징의 차이가 있으므로 치료 면에 있어 동일한 질병에도 체질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처방을 한다.

처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東醫壽世保元』¹ 「四象人辨證論」에 “明知其人而 又明知其證則 應用之藥 必無可疑”라 말하고 있듯이 체질과 병의 증을 정확히 알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 접수일 2005년 6월 28일; 승인일 2005년 8월 12일
• 교신저자 : 구덕모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7-8 대구한의대학교 부속포항한방병원
전화 : +82-54-281-0055 FAX : +82-54-281-7464
E-mail: dolee@chu.ac.kr
이 논문은 대구한의대학교 기려연구비 지원의 결과로 작성된 논문임

사상병증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²에 偏小之臟 중심의 편명으로 논했으나, 辛丑本으로 오면서 表裏病證에 寒熱 개념이 더해지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체질병증체계의 편명으로 병증을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증을 구분하여 사상처방을 활용할 때는 表裏寒熱의 구분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少陽人泛論」에 “少陽人病 中風·吐血·嘔吐·腹痛·食滯痞滿 五證 同出一屬而 自有輕重浮腫·喘促·結胸·痢疾·寒熱往來胸脇滿 五證 同出一屬而 自有輕重”이라 하여 사상의학에서의 병은 스스로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등속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병증을 관찰할 때는 표리병증의 輕重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 된다.

이러한 표리현열의 구분이나 병의 경중을 파악하는데 있어 소화, 대변, 땀 등 평소 가지고 있는 생리, 병리적 증상 즉 素證과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現證³, 성격 외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질병증을 판단한다.

이중 素證과 現證은 체질구분과 체질병증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각 처방에 대한 素證 및 現證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처방을 활용할 때는 대부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고 있다.

최근 素證에 관한 임상적 비교연구는 소화⁴, 대변⁵, 땀⁶과 증풍환자에 관한 연구⁷ 등이 있으나 이는 체질감별을 위한 체질 간의 素證 비교연구로 처방활용을 위한 단일 체질에서의 처방 간 素證에 관한 비교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 중 表病의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荊防地黃湯의 네 가지 처방과 裏病의 涼膈散火湯, 獨活地黃湯 등 총 6처방을 중심으로 각 처방별로 素證과 現證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통계적으로 연구하여 임상에 활용될 수 있는 증상을 찾아 보았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외래로 내원한

환자 중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273례를 본 연구의 대상군으로 선택하였다.

- ① 환자 스스로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 ② 소양인 처방을 20첩 이상 복용하고 차후 다시 내원했거나 일주일 이상 경과관찰이 가능했던 자.
- ③ 약 복용 후 약 복용당시 호소한 주소증이 호전이 된 자.

2. 연구방법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진료 전 미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본원에서 환자의 진료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소화, 대소변, 땀, 몸의 한열상태, 성격 등 소증에 관한 19문항과 자주 느끼는 병증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별첨).

주소증이 호전된 환자 중 처방의 빈도가 3례로 나타난 지황백호탕은 제외하고, 사용빈도가 높았던 형방패독산, 형방도적산, 형방사백산, 형방지황탕, 양격산화탕, 독활지황탕의 6가지 처방군을 대상으로 각 처방에 대한 연령, 성별 및 질현분포를 먼저 알아보고, 설문지를 통해 각 처방간의 비교 및 개별 처방과 나머지 처방들 간의 소증 및 병증을 통계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6개의 처방에 대한 각 문항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6개의 처방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6개의 각 처방집단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계획법인 'Completely Randomized Design(CRD)'를 사용하여 6개 처방집단과 각 설문 문항에 대해서 검정하였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난 설문문항에 대하여 6개의 처방에서 그 처리간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D에서의 다중비교(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다중비교는 Tukey, LSD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그룹을 정의하였다.

또한 개별처방과 나머지 처방과의 증상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개별처방과 나머지 처방을 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Age							Total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5
Male	23(8.42%)	19(6.96%)	19(6.96%)	35(12.82%)	12(4.4%)	7(2.56%)	5(1.83%)	0(0%)	120(43.96%)
Female	6(2.2%)	18(6.59%)	36(13.19%)	48(17.58%)	27(9.89%)	9(3.3%)	7(2.56%)	2(0.73%)	153(56.04%)
Total	29(10.62%)	37(13.55%)	55(20.15%)	83(30.4%)	39(14.29%)	16(5.86%)	12(4.4%)	2(0.73%)	273(100%)

각 그룹화 하여 Levene 등분산 검정을 이용 그룹 간 분산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구분해서 t-test를 실행하였다

위의 각 검정에 대한 결과는 유의수준 5%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인정하였고, 10%(P<0.10)일 경우에도 통계적인 경향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Ⅲ. 研究結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남녀의 비율은 44:56으로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조금 더 높았으며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40대 여자의 응답이 17.58%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80대 남성에서는 응답자가 조사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환자의 비율로 보면 30, 40대의 환자의 비율이 전체 환자 비율에 50.55%로 반을 넘고 있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은 여자 환자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2. 처방에 따른 연령분포

처방에 따른 연령 분포를 보면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40.9세로 나타났으며, 형방패독산과 형방사백산은 10대에서 40대까지 폭넓게 처방되었고, 형방지황탕과 양격산화탕은 20대에서 50대 형방도적산은 30대에서 50대까지 독활지황탕은 30대에서 60대 사이에 걸쳐서 처방되었다.

형방패독산과 형방사백산의 평균 연령은 3세로 전체 평균연령보다 낮았으며 독활지황탕의 평

Table 2. Age Distribution by the Prescription

Treatment	Range	LB	UB
Paedog	34.1 ±15.2	18.9	49.3
Dojeok	42.8 ±12.2	30.6	55
Sabaek	34.0 ±15.0	19	49
Hyungji	40.7 ±16.4	24.3	57.1
Yangkyuk	41.1 ±13.9	27.2	55
Dogji	53.4 ±15.1	38.3	68.5
Total	40.9 ±15.6	25.3	56.5

※ Rnge = mean±SD (SD: Standard Deviation)

Paedog:Hyungbangpaedog-san, Dojeok:Hyungbangdojeok-san, Sabaek:Hyungbangaesabaek-san Hyungji:Hyungbangjihwang-tang, Yangkyuk:Yangkyuksanhwa-tang, Dogji:Doghwaljihwang-tang

균 연령은 53.4세로 전체 평균연령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처방에 따른 성별분포

전체 남녀의 비가 44:56이었으나 각 처방별로 보면 형방도적산의 경우 사용된 24례 중 92%인 22례가 여자에서 사용되었으며, 형방사백산의 경우 전체 남자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61%에 해당하는 31례에서 사용 되었다(Table 3).

4. 질환분포

질환의 분류를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신경정신, 부인과질환, 허로, 피부, 오관 관절질환의 9가지로 분류 했으며 본인이 호소하는 가장 주된 증상으로 구분 하였다. 불면, 두통, 흥민, 정충, 진전,

Table 3. Gender Proportion by the Prescription

	Paedog	Dojeok	Sabaek	Hyungji	Yangkyuk	Dogji	Total
Male	9(3.30%)	2(0.73%)	31(11.36%)	15(5.49%)	50(18.32%)	13(4.76%)	120(43.96%)
Female	13(4.76%)	22(8.06%)	20(7.33%)	20(7.33%)	55(20.15%)	23(8.42%)	153(56.04%)
Total	22(8.06%)	24(8.79%)	51(18.68%)	35(12.82%)	105(38.46%)	36(13.19%)	273(100%)

Paedog:Hyungbangpaedog-san, Dojeok:Hyungbangdojeok-san, Sabaek:Hyungbangaesabaek-san, Hyungji:Hyungbangjihwang-tang, Yangkyuk:Yangkyuksanhwa-tang, Dogji:Doghwaljihwang-tang

Table 4. Patterns of Prescriptions and Disease

Disease	Paedog	Dojeok	Saback	Hyungji	Yangkyuk	Dogji	Total
소화기		2		7	4	2	15(5.5%)
순환기	1	7	8	4	17	8	45(16.5%)
신경정신		9	3	4	34	6	56(20.5%)
피부	15	3	35	2	27	2	84(30.8%)
허로			1	8	11	5	25(9.2%)
오관	2	1	4	3	6	3	19(7.0%)
관절	1	1		1	1	5	9(3.3%)
호흡기	2		1	4	2	2	11(4.0%)
부인		1		2	3	3	9(3.3%)
Total	21(7.7%)	24(8.8%)	52(19.0%)	35(12.8%)	105(38.5%)	36(13.2%)	273

Paedog:Hyungbangpaedog-san, Dojeok:Hyungbangdojeok-san, Saback:Hyungbangsaback-san, Hyungji:Hyungbangjihwang-tang, Yangkyuk: Yangkyuksanhwa-tang, Dogji:Doghwaljihwang-tang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Questions

Question	Range	Question	Range	Question	Range	Question	Range
18. 신경예민	1.40±0.19	20. 피로도	1.43±0.18	19. 성격급함	1.50±0.25	17. 신경슴	1.60±0.17
16. 추위느낌	1.67±0.18	4. 식욕	1.68±0.35	13. 냉 음수	1.73±0.25	30. 항 견통	1.82±0.12
14. 몸의 열	1.93±0.23	31. 요슬통	1.97±0.29	15. 수족냉	1.97±0.27	11. 땀의 정도	2.00±0.39
26. 상기	2.01±0.42	22. 두통	2.08±0.48	23. 현훈	2.16±0.72	27. 손발저림	2.16±0.59
12. 갈증	2.17±0.60	24. 흥민	2.20±0.67	21. 불면	2.21±0.69	25. 정충	2.22±0.70
29. 감기빈도	2.23±0.66	3. 가스 참	2.23±0.74	28. 부종	2.29±0.65	10. 소변횟수	2.33±0.69
1. 소화상태	2.34±0.86	5. 변비	2.36±0.85	2. 속 쓰림	2.44±1.07	6. 설사	2.51±1.15
9. 소변상태	2.51±1.11	7. 대변상태	2.52±1.12				

* Range = mean±SD (SD: Standard Deviation)

안검경련, 상기증 등을 신경정신과로 분류 했으며 증풍, 구안와사, 비증, 혈압, 당뇨, 다한증, 부종 등은 순환기로 분류 했고, 동통계 질환을 관절로, 피로를 주소증으로 한 경우에는 허로로 분류하였다.

전체 환자 중 피부과 질환이 30.8%인 84례, 신경정신과질환이 56례, 순환기 질환이 45 례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질환이 185례로 전체의 68%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허로, 오관 소화기 질환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처방을 살펴보면 총 273례 중 양격산화당이 105례로 전체의 38.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형방사백산(19%), 독활지황탕(13.2%), 형방지황탕(12.8%)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양격산화당은 신경정신과 질환에서 전체의 61%인 34례가 사용되었으며 순환기 질환에서는 38%인 17례가 사용되었고, 피로를 주소증으로 한 허로의 경우에도 양격산화당이 전체의 44%를 차지한 결과가 나왔다.

피부질환에서는 형방사백산, 양격산화탕, 형방패독산의 순으로 처방이 사용되었고, 소화기 질환에서는 형방지황탕이 전체의 46%인 7례가 사용되었다(Table 4).

5. 각 문항에 대한 통계량

본 연구는 소양인이라는 단일 체질에서 피부, 순환, 신경정신계통 위주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다른 체질이냐 혹은 소양인이라도 일반적인 체질감별에서의 응답과 다른 경향을 보일 수가 있다.

소변횟수를 제외한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Range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과 표준오차의 거리를 보여 주고 있다. 소변 대변상태, 속 쓰림 설사의 문항에서는 다른 문항에 대해서 높은 표준오차를 보이고 있기에 응답한 환자에게서 증상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문항은 응답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개별 혹은 전체 처방간의 소증 및 병증에 관한 비교 전에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을 조사해 보면 ‘예민하다’라고 답하는 경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피로하다’, ‘성격이 급하다’, ‘신경을 많이 쓴다’, ‘추위를 많이 탄다’, ‘식욕이 좋다’, ‘찬물을 많이 마신다’는 경향의 순으로 대답이 많은 편이었다.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은 문항은 주로 소화나 대소변에 관한 문항이었다(Table 5).

6. 개별 처방에 대한 CRD에서의 다중비교

각 처방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표에서 F검정통계량과 p-value 를 이용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을 선정 한 후, 각 처방에 대한 각 문항의 차이를 보기 위해 CRD에서의 다중비교 방법인 Tukey와 LSD 방법을 사용 유사한 그룹끼리 묶이는 형태를 확인하였다. Tukey 만의 방법으로 묶이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LSD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항1 ‘소화상태에 관한 것’, 문항 2 속 쓰림에 관한 것’, 문항 3 ‘가스가 차는 것’, 문항 4 ‘식욕에 관한 것’, 문항 10 ‘소변횟수’, 문항 15 냉음수에 관한 것’ 문항 16 ‘몸에 열을 느끼는 정도’의 문항은 유의수준 5% 안에서 처방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문항 24 ‘가슴이 답답함’의 경우 유의수준 10% 안에서 처방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Grouping한 결과를 보면 ‘소화상태에 관한 것’에서는 형방패독산(이하 패독), 형방사백산(이하 사백), 독활지황탕(이하 독지), 양격산화탕(이하 양격)이 소화상태에 대해 유사한 대답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사백, 독지, 양격, 형방지황탕(이하 형지), 형방도적산(이하 도적)이 처방별 유사한 대답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묶을 수 있다. 두 그룹간의 비교에서는 모두 평균의 크기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확인되고 평균이 클수록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패독은 소화가 잘 되며 형지와 도적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처방

Table 6. Comparing Paris of Treatment Means Using Multiple Comparison of CRD

Question	F value	Pr>F	Grouping						Method
			Paedog	Sabaek	Dogji	Yangkyuk	Hyungji	Dojeok	
1.소화상태	2.53	0.0296	Paedog	Sabaek	Dogji	Yangkyuk	Hyungji	Dojeok	Tukey
2.속 쓰림	3.20	0.0080	Paedog	Dogji	Sabaek	Hyungji	Yangkyuk	Dojeok	Tukey
3.가스 참	1.90	0.0952	Sabaek	Paedog	Dogji	Hyungji	Yangkyuk	Dojeok	Tukey
4.식욕	2.57	0.0272	Paedog	Dogji	Yangkyuk	Dojeok	Hyungji	Sabaek	Tukey
10.소변횟수	2.58	0.0269	Dogji	Hyungji	Dojeok	Yangkyuk	Paedog	Sabaek	Tukey
13.냉 음수	2.36	0.0405	Dojeok	Dogji	Paedog	Hyungji	Yangkyuk	Sabaek	LSD
14.몸의 열	3.35	0.0060	Dogji	Dojeok	Hyungji	Paedog	Yangkyuk	Sabaek	LSD
24.흉민	2.22	0.0526	Sabaek	Paedog	Hyungji	Dogji	Yangkyuk	Dojeok	LSD

Paedog:Hyungbangpaedog-san, Dojeok:Hyungbangdojeok-san, Sabaek:Hyungbangsabaek-san, Hyungji:Hyungbangjihwang-tang, Yangkyuk:Yangkyuksanhwa-tang, Dogji:Doghwaljihwang-tang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속 쓰림에 관한 것’에서는 폐독, 독지, 사백, 형지가 유사한 대담경향이 있었고, 독지, 사백, 형지, 양격, 도적이 유사한 경향이 있었으며, 폐독과 양격, 도적사이에는 속 쓰림에 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스가 차는 것’에서는 사백, 폐독, 독지, 형지, 양격과 폐독, 독지, 형지, 양격, 도적이 유사한 경향이 있었으며 각 그룹 간에는 사백과 도적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식욕에 관한 것’에서는 처방 간 유의성은 있었으나 유사그룹으로 묶이지는 않았다.

‘소변횟수’에 대해서는 독지, 형지, 도적, 양격, 폐독과 형지, 도적, 양격, 폐독, 사백이 유사한 그룹이었으며, 각 그룹 간에는 독지가 소변 횟수가 많은 것으로 사백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냉 음수에 관한 것’에서는 도적, 독지, 폐독, 형지, 양격과 형지, 양격, 사백으로 묶이게 되었고, 각 그룹 간에는 사백이 찬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독지, 도적, 형지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몸에 열을 느끼는 정도’에서는 독지, 도적, 형지, 폐독, 양격과 폐독, 양격, 사백이 유사한 대담경향의 그룹이었으며 각 그룹 간에는 사백이 몸에 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독지, 도적, 형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다’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차이가 있는 경향을 보이고 유사그룹이 묶인 부분을 보면 사백, 폐독, 형지, 독지와 폐독, 형지, 독지, 양격, 도적이 묶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격과 도적이 가슴이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사백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6).

7. 개별 처방과 나머지 처방간의 증상비교

개별처방과 나머지 처방과의 증상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개별 처방과 나머지 처방을 각각 그룹화 하여 Levenue 등분산검정 후 t-test를 실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형방폐독산

형방폐독산의 처방에 대해서 소화상태의 문항을 보면 폐독산을 처방한 그룹과 나머지 그룹간의 분산차이가 유의수준 5%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에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t검정을 하였고 그 결과 폐독산을 처방하였을 경우 나머지 처방 그룹에 비해 소화가 잘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속쓰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서 폐독산은 타 처방에 비해 속 쓰림을 덜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대변에 대해서는 등분산을 만족하고 유의수준 10%내에서 차이가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t통계량이 음수로 나온 결과로 보아 폐독산이 나머지 처방에 비해 대변이 단단하다는 대답의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형방도적산

형방도적산에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가스가 많이 찬다’, ‘변비의 경향성이 있다(P<0.05)’라는 소화기계통의 대답과 ‘현훈이 자주 나타난다’(P<0.1)는 대답이 타 처방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3) 형방사백산

형방사백산은 열에 관한 대답 중 ‘찬물을 좋아한다’, ‘몸에 열이 많다’(P<0.05)라는 대답과 소화기에 관해 ‘속 쓰림을 느끼지 못한다’, ‘식욕이 좋다’(P<0.05) ‘가스가 차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P<0.1)라는 대답이 타 처방들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외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신경이 예민하지 않다’, ‘홍민을 느끼지 못한다’(P<0.05) ‘손발 저림이 적다’(P<0.1)는 대답의 경향성이 타 처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형방지황탕

형방지황탕은 타 처방에 비해 두통이 적고, 피로를 많이 느끼는(P<0.1) 경향이 있었다.

5) 양격산화탕

양격산화탕은 ‘신경을 많이 쓴다’, ‘신경이 예민하다’(P<0.05), ‘가슴이 답답하다’, ‘성격이 급하다’(P<0.1)라고 느끼는 사람이 타 처방에 비해 많았으며, ‘속이 쓰리고’, ‘식욕이 없는(P<0.1) 경향을 나타냈다.

6) 독활지황탕

독활지황탕은 타 처방에 비해 소변보는 횟수가 많고, ‘몸에 열이 적다’, ‘성격이 급하지 않다’, ‘불면이 자주 있다’(P<0.05)라는 대답의 경향성이 높았으며, ‘상열감이 적다’, ‘손발 저림이 많다’, ‘감

Table 7. Comparisons of symptoms between each prescription and the group of another prescriptions

Prescription	Question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Sig.
Paedog	1.소화상태	8.109	0.005	1.987	0.049
	2.속 쓰림	8.816	0.003	2.084	0.038
	7.대변상태	0.588	0.444	-1.808	0.072
Dojeok	1.소화상태	0.040	0.842	-2.803	0.038
	3.가스 참	0.650	0.421	-2.498	0.013
	5.변비	0.141	0.708	-2.149	0.033
	23.현훈	2.805	0.095	-1.900	0.068
Sabaek	2.속 쓰림	7.255	0.008	2.236	0.028
	3.가스 참	0.648	0.422	1.894	0.059
	4.식욕	0.884	0.348	-2.496	0.013
	13.냉음수	1.364	0.244	-2.590	0.010
	14.몸의 열	0.153	0.696	-3.058	0.002
	18.신경 예민	2.514	0.114	2.021	0.044
	20.피로도	4.266	0.040	2.091	0.040
	24.홍민	2.820	0.094	3.337	0.001
Hyungji	27.손발 저림	4.894	0.028	1.772	0.080
	20.피로도	7.177	0.008	-1.690	0.097
	22.두통	0.401	0.527	1.825	0.069
Yangkyuk	2.속 쓰림	0.000	0.986	-2.601	0.010
	4.식욕	0.827	0.364	1.855	0.065
	17.신경 씬	4.108	0.044	-2.067	0.040
	18.신경 예민	15.237	0.000	-2.072	0.039
	19.성격 급함	0.884	0.348	-1.659	0.098
Dogji	24.홍민	0.091	0.763	-1.659	0.098
	10.소변횟수	0.080	0.777	-2.633	0.009
	14.몸의 열	0.068	0.794	2.667	0.008
	19.성격 급함	0.194	0.660	2.034	0.043
	21.불면	3.343	0.069	-2.092	0.042
	26.상기	0.094	0.760	1.940	0.053
	27.손발 저림	0.015	0.901	-1.778	0.077
29.감기빈도	0.375	0.541	-1.897	0.059	
31.요슬통	0.096	0.757	-1.892	0.060	

Paedog:Hyungbangpaedog-san, Dojeok:Hyungbangdojeok-san, Sabaek:Hyungbangsabaek-san, Hyungji:Hyungbangjihwang-tang, Yangkyuk:Yangkyuksanhwa-tang, Dogji:Doghwaljihwang-tang

기가 잘 걸린다', '허리나 다리가 아프다'(P<0.1)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높았다(Table 7).

IV. 考 察

소양인의 병증은 脾受寒表寒病과 胃受熱裏熱病으로 나누어 전체적인 병증을 논하고 있다. 脾受寒表寒病에는 少陽傷風, 結胸, 亡陰의 병증으로 구분

할 수 있고, 胃受熱裏熱病에는 胸膈熱證과 陰虛午熱의 병증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체질적으로 中上焦 脾局의 陽熱之氣가 성하며 下焦 腎局의 陰寒之氣가 부족해지기 쉬운 체질로서, 陽熱의 과잉과 이로 인한 脾局陰氣의 하강불리로 인한 陰結 및 陰不足으로 表裏病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양인의 병은 脾局陰氣가 소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과잉될 수 있는 陽熱之氣를 억제하

며 부족한 陰을 보충하는 처방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⁸⁾

사상병증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甲午本の 表裏病證에 寒熱개념이 더해지고, 偏小之臟과 偏大之臟을 같이 고려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체질병증체계로 완성이 되게 된다. 또한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처방도 크게 表寒病과 裏熱病에 관한 처방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처방을 활용하기 위해선 「四象人 辨證論」에 “少陽人 或有短小靜雅 外形 恰似少陰人者 觀其病勢寒熱 仔細執證 不可誤作少陰人治”라고 나타나 있듯이 기본적으로 表裏와 寒熱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상의학에서의 병증은 少陰人 痞滿, 浮腫, 黃疸와 「少陽人 泛論」중 表裏病의 五種病證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같은 병증도 輕重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병증이 표리병증 경증의 어느 단계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리 한열구분과 체질병증의 경증을 파악하기 위해 평소 가지고 있는 생리, 병리적 증상 즉 素證과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病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東醫壽世保元』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⁹⁾에서는 각 체질에 따른 素證을 기술하고 있는데, 「太陰人 胃脘受寒表裏病論」에 “大凡瘧疫 先察其人素病如何則 表裏虛實 可知 素病寒者 得瘧病則 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瘧病則 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瘧病則 重證也 素病重者 得瘧病則 險證也”라고 하여 素證에 따라 病證의 발현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질을 구분하고 素證을 파악하여 表裏, 寒熱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처방의 운용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素證과 現證등으로 병증의 輕重 정도도 파악해야 하나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처방의 해설은 『東醫寶鑑』이나 『方藥合編』과 같이 자세한 方解는 나와 있지 않으며, 많이 활용하고 있는 新定要方의 내용도 처방해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간단한 설명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상인 병증론중 처방에 관련된 원문 내용에서 또한 병증을 파악해야 하는데 『東醫壽世保元』에서

는 주로 傷寒에 관한 예문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현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병증들의 사상적인 처방증을 잡기가 난해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처방에 대한 방해나 적용할 수 있는 소증과 어떤 병증 위주로 이 처방이 사용된다는 임상적 지침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 주관적인 판단 하에 처방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선 소양인의 각 처방 간 소증 및 현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한방병원 외래로 내원한 환자 중, 소양인 처방을 20첩 이상 복용하고 임상적 경과 관찰이 가능했으며, 약물 복용할 당시 호소한 주소증이 호전된 환자만을 선택하여, 당시 작성한 설문지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설문지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진료받기 전에 미리 환자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다.

사용된 처방은 表寒病에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荊防地黃湯의 4종 처방과 裏熱病의 涼膈散, 火湯, 獨活地黃湯, 地黃白虎湯 3종 처방이었으나 地黃白虎湯은 3례 밖에 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총 6종의 처방을 분석하여 보았다.

荊防敗毒散은 『東醫壽世保元』 원문 중 총 일곱 조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東武가 表寒病에 있어 結胸을 예방하고 三神山 不死藥이라 칭한 것으로 보아 소양인의 임상적 활용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방이다. 方解에 治頭痛 寒熱往來者 宜用이라 나타나 있으며 少陽人 表寒病에서 傷寒 大靑龍湯證, 小柴胡湯證에 응용하였고 소양인 忽然嘔吐者, 表病 有頭痛, 勞瘧時 瘧發日에 응용하였는데 結胸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되는 처방이므로 表寒病 輕證 혹은 초기에 응용되는 처방이라 할 수 있다.

荊防導赤散은 少陽病證, 結胸證에 사용한 조문이 나타나 있으며, 方解에 治頭痛 胸膈煩熱者에 宜用한다 하여 가슴에 울체된 陰結과 火를 풀어주는 처방이라 할 수 있다.

荊防瀉白散은 少陽人 表寒病 少陽病證, 熱性亡陰, 裏熱便閉의 초증에 응용된다는 예문이 나타난 처방이다. 頭痛 膀胱踴躍者에 사용한다 하였으며 裏熱便閉 초기에 사용된다는 내용과 知母, 石膏의 약물이 구성된 것으로 보아 表寒病 처방중 裏熱의 세력이 커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 할 수

있다.

荊防地黃湯은 少陽人 亡陰證과 浮腫에 응용한 예문이 나타나 있다. 熟地黃, 山茱萸가 들어 있어 陰結을 풀어줌과 동시에 降陰不利로 인한 陰不足을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무릇 허약자에게 수 백첩을 사용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涼膈散火湯은 裏熱病 내용 중 上消 와 頭面項頰의 瘡毒性 병변에 사용된다 하였으며 少陽人 裏病 胸膈熱證에 대표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처방이다. 소양인 胸膈熱證은 胸煩悶燥가 주증상이나 그 증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아 초기에 증을 잡기가 어렵다고 했으나, 소갈이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而 陋固膠小 所見者 淺 所欲者 速 計策鶻突 意思艱乏”하여 발생된다 하였으므로 성격 및 스트레스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獨活地黃湯은 소양인의 瘡滿 腹痛 腰痛의 임상례에서 사용하였으며 下消, 中風 嘔吐, 瘡不發日에 사용한 예문을 볼 수 있다. 食滯痞滿者 宜用이라 하였으며 火熱로 인한 陰精不足을 보완하는 것으로 처방이 구성되어 있으며, 퇴행적이고 소모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보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 할 수 있다⁸.

본 임상에서 처방은 본방 위주로 사용하였으며 荊防地黃湯에는 牡丹皮를 가하였고, 荊防導赤散은 茯苓, 澤瀉를 가한 導赤降氣湯을 사용하였다.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涼膈散火湯에는 열의 상태에 따라 石膏를 가하거나 증량하였고, 荊防地黃湯, 獨活地黃湯에는 前胡, 瓜蒌仁, 枸杞子, 牛膝, 杜沖, 黃連, 牛蒡子 등을 증상에 따라 한두 가지 가하였다. 또한 피부병에는 浮萍草나 金銀花 중 한 가지 약물을 가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사용된 처방과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연령은 40.9세로 나타났으며, 형방패독산과 형방사백산의 평균 연령은 34세로 전체 평균연령보다 낮았는데, 이는 형방패독산이 표한병중 경증에 사용될 수 있고, 형방사백산은 표한병 처방중 양열이 가장 성한상태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젊을수록 보명지주가 잘 유지되어 병이 아직 깊지 않고 몸 전체의 열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독활지황탕의 평균 연령은 53.4세로 전

체 평균연령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모적인 음정의 허손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사용된 처방과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153례로 56%, 남자가 120례로 44%를 차지하였는데 이중 형방도적산의 경우 사용된 24례 중 92%인 22례가 여자에서 사용되었으며 형방사백산의 경우 전체 남자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61%에 해당하는 31례에서 사용되었다. 이로 보아 도적산은 여자에서 사백산은 남자에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는데, 도적산의 경우 흉격번열자에 의용한다하여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심리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가슴에 열이 더 많이 쌓이지 않나 사료되며, 보통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빠르고 양적인 열의 발생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열이 성한상태에 사용되는 사백산이 남자에게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사용된 처방과 질환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환자 중 피부질환자가 84명으로 3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신경정신, 순환기질환의 순으로 환자가 분포 하였는데 이 세 그룹의 환자가 전체의 68%를 차지하였다.

사용된 처방은 총 273례 중 양격산화탕이 105례로 전체의 39%를 차지 하였는데 신경정신과 계통 질환에서 전체의 61%인 34례가, 순환기 질환에서는 38%인 17례가 사용되었으며, 피로를 주소증으로 한 허로의 경우에도 음정부족을 보완하는 형방지황탕나 독활지황탕보다 양격산화탕이 전체의 44%를 차지해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저하와 화로 인한 양열지기의 과잉이 보명지주를 약화시켜 피로를 오게 하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열이 주원인이 되는 피부질환의 특성상 형방사백산이 다음으로 다용되었으며 독활지황탕, 형방지황탕의 순으로 처방이 사용 되었다.

피부질환에서는 사백산, 양격산화탕, 패독산의 순으로 사용 되었고 소화기 질환에서는 형방지황탕이 전체의 46%인 7례가 사용되어 만성 소화기질환 계통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CRD에서의 다중비교를 통한 처방들 간 유의한 차이가 난 문항을 살펴보면 소화상태, 속 쓰림, 가스상태, 식욕 등 소화에 관한 문항들이 모두 처방

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로 보아 처방을 응용할 때 소화에 관한 증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 소변횟수, 냉수에 대한 선호도, 몸의 열 상태, 가슴이 답답함의 문항에서 처방들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처방별 유사한 대답경향의 그룹끼리 묶인 형태의 비교에서는 '소화상태'에 관한 문항에서 형방패독산이 소화가 잘 되는 경향으로 형방지황탕, 형방도적산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향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속 쓰림'에 관한 문항에서는 양격산화탕과 형방도적산이 속 쓰림을 느끼는 경향으로 형방패독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스가 차는 것'에 관해서는 형방도적산이 가스가 차는 것을 느끼는 경향으로 형방사백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로 보아 형방패독산과 형방사백산은 소화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형방도적산, 형방지황탕, 양격산화탕은 처방을 사용할 때 소화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변횟수'에 관해서는 독활지황탕이 소변 횟수가 많은 경향으로 형방사백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냉수에 대한 선호도'와 '몸의 열의 상태'에 관한 문항에서는 형방사백산이 찬물을 좋아하고 몸에 열이 많은 경향으로 형방도적산, 독활지황탕, 형방패독산과 독활지황탕, 형방도적산, 형방지황탕 등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슴이 답답함'에 관한 문항에서는 양격산화탕과 형방도적산이 가슴이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형방사백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환자가 불편을 느끼는 증상에 대해 한 처방과 나머지 다섯 처방을 그룹화한 후 대답비교를 해본 결과, 형방패독산에서는 타 처방에 비해 소화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대답에서는 참고할 만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형방패독산이 경증 초기증상 위주의 환자에 대응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함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되며, 형방도적산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가스가 많이 차며, 변비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현훈을 자주 느끼는 편이었고,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유의수준 15%안에서 유의

함을 볼 수 있는 문항으로 타 처방에 비해 두통을 자주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잘 붓고, 목이나 어깨가 결리는 경향의 대답을 한 것도 참고해 볼 만하다.

형방사백산도 형방패독산과 마찬가지로 타 처방에 비해 소화력이 좋았으며, 이외 찬물을 좋아하고 몸에 열이 많은 경향으로 대답이 나타났으며 피로, 예민, 흥민 수족비증의 문항에서 주로 긍정적인 경향의 대답이 많았다.

형방지황탕은 타 처방에 비해 피로를 많이 느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의 증상($P<0.15$)을 참고해 볼만하며, 망음의 주증상인 설사에 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양격산화탕은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하며, 성격이 급하고 가슴이 답답한 경향이 타 처방들에 비해 많았으며, 속이 쓰리고 식욕이 없는 소화기 증상의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피로를 많이 느낀다($P<0.15$)는 경향도 있었으며 상기 증상들이 소양인 흉격열증에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참고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독활지황탕은 타 처방에 비해 소변 보는 횟수가 많고, 불면이 자주 있는 경향과 손발 저림이 많으며, 감기가 잘 걸리고, 허리나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향이 타 처방들에 비해 많았다.

향후 질환별로 각 문항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으며, 소양인환자 뿐 아니라 태음인, 소음인 환자의 처방에 관한 결과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한 사람의 임상결과이므로, 차후 다른 임상 결과도 자주 발표되고 이를 통해 소증 및 현증의 객관화가 어느 정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論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외래로 내원한 환자 중, 약 복용 후 호소한 주소증이 호전된 소양인 273례를 대상으로 각 처방간의 소증 및 현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문지를 통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처방들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소화상태에 관한 것', '속 쓰림에 관한 것', '가스가 차는 것', '식욕에 관한 것'의 소화에 관한 모든 문항과 '소변횟수', '냉 음수', '몸에 열을 느끼는 정도', '가슴이 답답함'의 문항이었다.

2.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에 대해 유사한 대담경향을 묶어 비교한 결과, 형방패독산이 소화가 잘 되는 경향으로 형방지황탕, 형방도적산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대담경향으로 처방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격산화탕과 형방도적산이 속 쓰림을 느끼는 경향으로 형방패독산과 차이가, 형방도적산이 가스가 차는 것을 느낀다고 대답하는 경향으로 형방사백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독활지황탕은 소변 횟수가 많은 경향으로 형방사백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형방사백산은 찬물을 좋아한다는 경향으로 형방도적산, 독활지황탕, 형방패독산과 몸에 열이 많은 경향으로 독활지황탕, 형방도적산, 형방지황탕등 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양격산화탕과 형방도적산이 가슴이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대담경향으로 형방사백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한 처방과 나머지 다섯 처방을 그룹화한 비교에서 대담에 유의성이 나타난 문항을 살펴본 결과, 형방패독산은 타 처방에 비해 소화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방도적산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가스가 많이 차며, 변비와 현훈을 자주 느끼는 대담경향이 있었다.

형방사백산은 타 처방에 비해 소화력이 좋고 찬물을 좋아하며 몸에 열이 많은 경향으로 대담이 나타났으며, 형방지황탕은 타 처방에 비해 피로를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고, 양격산화탕은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하며, 성격이 급하고 가슴이 답답한

경향이 타 처방들에 비해 많았으며, 속이 쓰리고 식욕이 없는 소화기 증상의 대담경향이 나타났다.

독활지황탕은 소변보는 횟수가 많고, 불면이 자주 있는 경향과 손발 저림이 많으며 감기가 잘 걸리고 허리나 다리가 아프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타 처방들에 비해 많았다.

VI. 參考文獻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
2. 이제마 원저. 김달래 편역. 동의수세보원 감요구본. 목과토, 서울, 2002.
3. 조황성. 사상의학의 원리와 방제. 집문당, 서울, 2003:142-149.
4. 백태호, 최정락, 박성식. 소화에 관한 체질별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 112-119.
5. 최재영,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대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 14(2):58-68.
6. 최재영, 박성식, 이재섭. 사상체질에 따른 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한의학회지. 2002; 23(4):186-195.
7. 함동일, 황민우, 이태규, 김상복,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중풍입원환자의 체질별 소증과 중풍 발생 후 병증에 관한 임상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3):34-45.
8. 이정찬. 신 사상의학론Ⅱ. 목과토, 서울, 2003: 178-180, 241-249.
9.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 집문당, 서울, 2003.

<별첨>

1. 평소 소화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② 가끔 체하거나 불편하다.
 ③ 소화가 잘 되는 편이다.
2. 속이 쓰리고 아픈 것을 느끼니까?
 ① 자주 느낀다.
 ② 가끔 느낀다.
 ③ 느끼지 못한다.
3. 배에 가스가 차는 것을 느끼니까?
 ① 자주 느낀다.
 ② 가끔 느낀다.
 ③ 느끼지 못한다.
4. 식욕은 어떠합니까?
 ① 좋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식욕이 없다.
5. 평소 변비 경향이 있습니까?
 ① 변비가 자주 있다.
 ② 가끔 변비가 생긴다.
 ③ 아니다.
6. 설사를 하는 편입니까?
 ① 설사를 자주한다.
 ② 가끔 설사를 한다.
 ③ 아니다.
7. 대변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단단하다. ② 무르다. ③ 보통이다
8. 대변의 횡수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회 혹은 ()일에 1회
9. 소변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
 ② 가끔 시원치 않다.
 ③ 시원하게 잘 본다.
10. 소변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보십니까?
 ① 2-3회 ② 4-6회 ③ 7-9회 ④ 그 이상
11. 평소 땀은 어떠합니까?
 ①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다.
 ② 땀을 조금 흘리는 편이다.
 ③ 땀이 많지 않다.
12. 갈증을 자주 느끼니까?
 ① 자주 느낀다.
 ② 가끔 느낀다.
 ③ 별로 느끼지 못한다.
13. 평소 찬물을 좋아 하십니까?
 ① 좋아한다.
 ② 보통이다.
 ③ 찬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14. 몸에 열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몸에 열이 많다.
 ② 보통이다.
 ③ 열이 많지 않다.
15. 손발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손발이 차다
 ② 보통이다
 ③ 손발이 더운 편이다.
16. 추위를 느끼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추위를 많이 탄다.
 ② 보통이다.
 ③ 추위를 타지 않는다.
17. 신경 쓰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신경 쓰는 일이 많다.
 ② 보통이다.
 ③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다.
18. 신경이 예민한 편입니까?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아니다.
19. 성격은 어떠합니까?
 ① 급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느린 편이다.

다음의 문항 중 해당되는 곳에 √ 표 하시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아니다
20. 피로를 느낌			
21. 불면이 있음			
22. 두통이 있음			
23. 어지럼증을 느낌			
24. 가슴이 답답함			
25. 가슴이 두근거림			
26. 얼굴에 열이오름			
27. 손발이 저림			
28. 몸이 붓는다.			
29. 감기가 잘 걸림			
30. 목이나 어깨 결림			
31. 허리나 다리가 아픔			